

사무엘하 6.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 (삼하 6 장 1-23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다윗'은 블레셋의 반복된 침략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물리친 후 온 이스라엘을 더욱 더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금껏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다윗'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는 급히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두고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오벧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써의 체통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추한 꼴을 보인 것이라고 비난을 하였고, 이는 결국 자신을 향한 '다윗'의 애정을 거두어 버리는 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10 절)

1) 이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_____명의 사람들을 따로 모아 준비시켰습니다. (1 절)

- ✧ 이들은 아마도 각 지파에서 언약궤의 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일 것!
- ✧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일꾼들을 부르시고 모으심을 기억.

2)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알레유다' 에 있었습니다. (2 절)

- ✧ '바알레유다' = '기랴여아림'의 가나안식 명칭
- ✧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약 70 년간 머물러 있었음!
 - '벧세메스'에서 '기랴여아림'으로 옮긴 후 '에벤에셀' 전투까지 20 년 + '사울'의 통치 기간 40 년 + 그 후 약 10 년

■ 여기서 2 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주목
- 곧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시골 마을에서 수십 년간 머물러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

- ✧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였다는 것!
- ✧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외적인 물건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표현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맘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3)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실어 운반하게 하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며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3-5 절)

✧ 이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이끌도록 하였음.

■ 그럼 이런 ‘다윗’의 결정은 옳은 것일까? 답은 YES or NO

✧ 이러한 운반법은 오래 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율법에는 어긋난 방식이었음!

✧ 참고: 모세의 율법 (민수기 3 장 27 절 이하, 4 장, 32 장 7 절 이하. etc.)

–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감당!

– 특히 언약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닌 레위 지파가 직접 어깨로 매고 옮겨야 함!

✧ 이는 결국 ‘다윗’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음!

4)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운반하던 중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6-7 절)

✧ ‘웃사’가 죽게 된 결정적 이유는?

–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게 되자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

■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5)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는 그곳을 ‘베레스웃사’ 라고 이름하였습니다. (8-9 절)

✧ ‘베레스웃사’란 ‘웃사와 충돌하신 곳’이란 말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신 곳’이란 의미.

■ 주목할 것 - 그런데 이때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며 분하였다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

✧ 그럼 왜 ‘다윗’은 화를 내었을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었을까?

✧ 3 가지 견해

- 언약궤에 분별없이 손을 댄 ‘웃사’의 불경함에 대한 분노
-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자책 때문
- 하나님께서 ‘웃사’를 갑자기 죽이신 그 자체에 대한 분노

✧ 전통적인 학자들 - 3 번째를 선택

- 곧 당시 ‘다윗’은 자신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정성을 쏟은 것을 보시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웃사’를 죽게 하신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것! (ex: 모세의 분노, 요나의 분노, etc.)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신앙 습관을 온전히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겨가기를 두려워하여,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9-10 절)

☆ 여기서 저는 ‘두려움’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 부정적인 측면 = ‘10 절,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가기를 포기했다는 것!

- 긍정적인 측면 = 부주의하고 불순종하는 걸음을 다윗이 멈추고 심각하게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

☆ 참고로 이때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용기는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

- 만약 내가 당시 ‘오벧에돔’이었다면 어땠을까?

- 어떠한 삶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중심에 모실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용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2.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올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11-19 절)

1) ‘다윗’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1 절)

☆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벧에돔’의 집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

☆ 아마도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증거로 보았던 것이 아닐까?

2) ‘오벧에돔’의 집에서부터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 가는 ‘다윗’의 자세를 주목!

① 13 절, 여호와와 언약궤를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어깨에 매고 걷게 함!

② 13 절, 이때 저들이 여섯 걸음을 걸자, 곧 일곱 걸음 때에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

③ 14 절, 그 후 성으로 들어올 때까지 언약궤 앞에서 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춤!

④ 15 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함!

⑤ 17 절,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미리 장막을 치고 준비하였음!

⑥ 17 절, 언약궤가 장막에 안치되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

⑦ 18 절, 번제와 화목제 드린 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함!

⑧ 19 절, 그 자리에 있던 온 백성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눠 줌!

■ 곧 처음 자세와는 완전히 달라진 ‘다윗’의 자세를 발견하게 됨!

☆ 율법에 따라 더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그리고 자신이 친히 예배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

☆ 뿐만 아니라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로 마무리하며, 안전하게 언약궤를 옮긴 것에 대한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함!

☆ 이때 다윗은 단순히 말로만 기쁨과 감사를 백성들과 나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었다는 것!

■ 참고: 언약궤가 다윗 성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 ✧ 번제 =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 + 화목제 = 하나님의 용서와 교제와 감사에 대한 제사
- ✧ 곧 이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교제와 화목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성도들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교제와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떡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다윗’을 업신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 절)

1) 우선 16 절을 주목해 볼 것!

‘여호와와 그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 ✧ 이때 ‘미갈’의 잘못은?

2) 이후 ‘미갈’은 온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온 ‘다윗’을 조롱하며 비꼬았습니다. (20 절)

- ✧ 20 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3) 이런 ‘미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 ✧ 21 절 -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
Why? ->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 ✧ 22 절 - 하나님 때문이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 수 있음!
-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
- ✧ 23 절 - 여기서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
- 곧 이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

■ 그럼 왜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꼬는 말을 하여 ‘다윗’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을까?

- ✧ 우선 그녀의 맘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 ✧ ‘사울’로부터 물려받은 왕족이라는 신분의 나름의 귀족성이 자기 맘속에 가득했기 때문이 아닐까?
- ✧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자랑도 권위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